

광주·대구테크노파크, 하늘길·철도길 따라 '달빛산업동행' 시동

윤종채 기자 | 승인 2024.02.08 08:55

달빛산업동행협약 맺고
달빛산업단지 조성 추진
초광역협력사업 등 발굴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와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도건우)는 7일 달빛산업동행협약을 체결했다./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7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달빛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잇는 달빛산업동행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지역의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의 거점기관인 대구TP와 광주TP는 전날 협약을 통해 달빛산업동행을

맏고 달빛산업단지 조성 논의를 뒷받침하고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달빛 산업동행 협력 협의체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상·하반기 산업협력교류회를 순회 개최해 달빛산업동행 업무협약과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해당 부서 간 교류를 통해 수시로 협력과제를 발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국가 주요 거점광역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불균형, 영호남 연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대구 센서로봇센터, 광주 모빌리티 전장의장부품과 대구 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광주 생체의료소재부품 대구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서로 강점을 갖는 산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런 두 지역의 강점 주력산업이 협력할 경우 강력한 산업협력 시너지를 발생시켜 두 지방거점도시의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산업경제권 협력의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산업협력은 영호남분열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상생경제협력을 통해서 달빛동맹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면서 “광주 인공지능과 대구 디지털혁신단지를 결합시키는 강력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최근 대구TP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혁신기관인 양 TP가 협력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파워풀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